

中 문화부장 “중국문화원 광주분원 반드시 추진”

〈문화부장관〉

“광주는 중국인 사랑받는 정율성 선생 고향 각별”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 윤장현 시장 요청에 화답

광주시의 중국문화원 분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차이나 프렌들리”를 추진 중인 윤장현 광주시장에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 문화원 광주분원 유치를 강력 요청한 끝에 차이우(蔡武) 중국 문화부 부장(장관)으로부터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중인 윤장현 광주시장은 7일 베이징 중국 문화부에서 차이우 부장을 만나 “시장 취임 후 핵심정책으로 ‘중국과 친해지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 중국 문화원 광주 분원 설립”이라며 “한-중 우호의 화룡점정이자 상징으로서 광주에 중국 문화원 분원 설립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광주시 대변인실은 전했다.

윤 시장은 또 “내년 7월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 중국 문화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이우 부장은 “중국 문화원 광주분원 설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우 부장은 특히 “윤 시장의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기쁘게 생각하며, 광주는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중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고향으로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문화원은 현재 서울시에 설립돼 있

으며, 중국 내 한국 문화원은 베이징과 상하이 두 곳에 설치돼 있다.

광주시는 또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2014 한·중문화교류의 밤’ 공연을 열어 중국인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날 무대는 광주 태생으로 중국의 3대 음악가인 정율성의 음악으로 시작됐으며,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지휘 김광복)의 정율성 작곡 오페라 ‘망부운’과 관현악 ‘축연무’ 연주 등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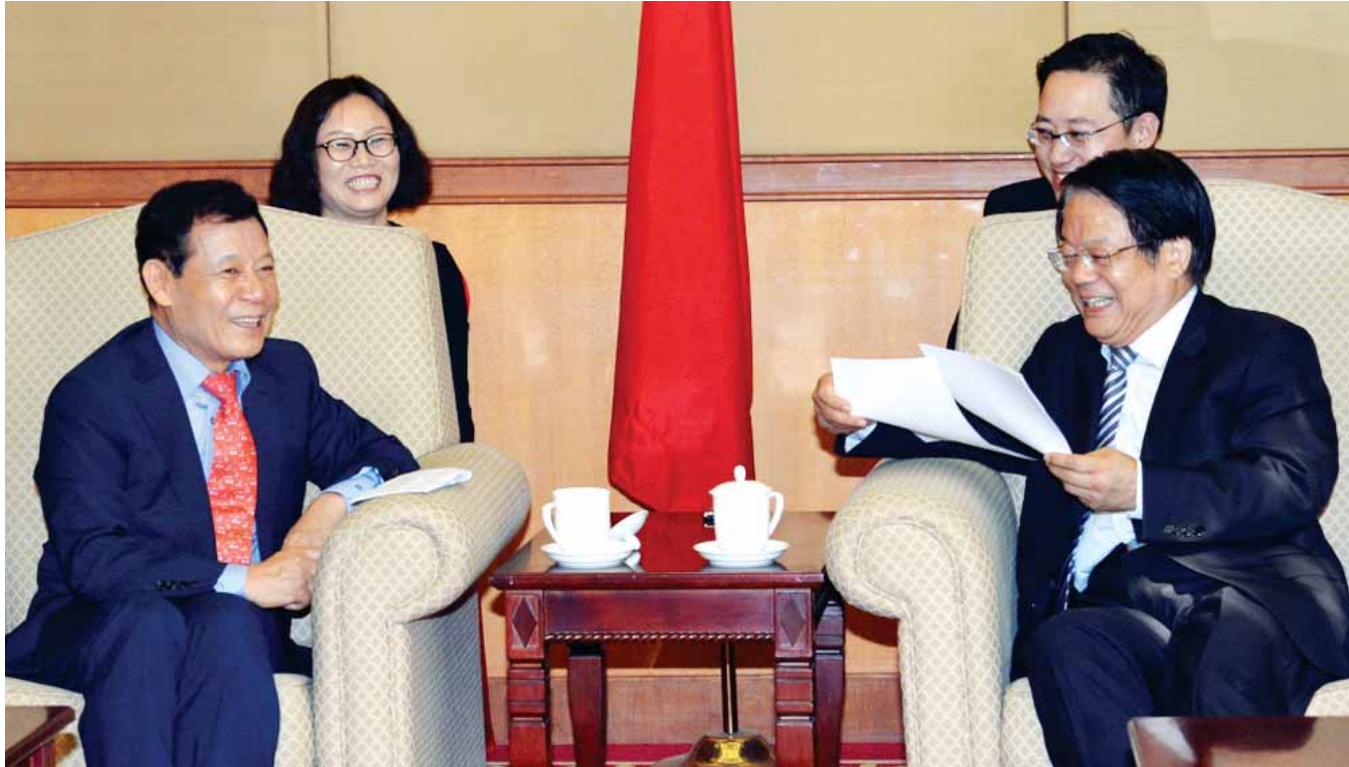
특히 정율성의 동요와 가곡을 소프라노 김진희, 메조 소프라노 신은정, 테너 김백호, 바리톤 박병국,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황운영, 노주영이 합창해 베이징 시민의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밖에 광주시 ‘한·중전통문화교류팀’은 중국 내 한류 열풍을 몰고 온 드라마 ‘대장금’과 ‘별에서 온 그대’의 주제음악,

‘경복궁 타령’을 비롯한 김광복 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의 피리 독주, 남도민요 등 아름다운 선율로 베이징의 밤을 물들였다.

윤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중국 내 5개 현지 여행사와 관광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기업,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광주로의 투자를 요청하는 등 광주와 중국 간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왼쪽)과 차이우 중국 문화부 부장(장관)이 7일 베이징 중국 문화부 귀빈루에서 중국문화원 광주 분원 유치를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소리없이 묻힌 군인범죄 작년 7530건

70%가 일반 형사사건

새정치 서영교의원 자료

“윤일병 사망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군인범죄가 5년 새 최다인 753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가 군 특수성과 관련이 없는 폭행, 성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이어서 이런 사건들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7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군검찰에서 다룬 군인 관련 사건은 7530건이었다. 이는 2012년 6946건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최근 수년 동안의 군 검찰 사건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7448건 ▲2010년

6627건 ▲2011년 7053건 ▲2012년 6946건 ▲작년 7530건 등이다. 신분별로는 일반 병사가 연루된 사건이 6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사관 25.8%, 장교 9.6% 순이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 같은 교통범죄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나 상해 같은 폭력범죄가 16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행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성 관련 사건도 543건에 달했다.

사기·공갈이 542건, 절도·강도가 524건, 횡령·배임 105건이었다. 그러나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보안에 관련된 것은 15건에 불과했다. 탈영이나 군용물 범죄, 군인들 간 추행 같은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범죄는 194건으로 전체의 14%에 그쳤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육군참모총장 전북 부안출신 김요환 대장

3군사령관 김현집

2작전사령관 이순진 내정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으로 사의를 표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후임자로 김요환(58)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육사 34기)이 내정됐다고 국방부가 7일 밝혔다.

전북 부안출신인 김 내정자는 8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제3군사령관에는 김현집 합동참모차장(중장·육사 36기)이, 제2작전사령관에는 이순진 항공작전사령관(중장·3사 14기)이 각각 내정됐다.

김 육군총장 내정자는 3사단장과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수도군단장, 육군참모차장 등을 역임한 아전작전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3군 사령관에 내정된 김현집 중장은 28사단장, 합참 작전부장, 5군단장 등을 역임한 작전 통이며, 2작전사령관에 내정된 이순진 중장은 2사단장, 합참 민군심리전 부장, 수도군단장 등을 역임한 작전 및 교육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연합뉴스

전남도, 사회적 경제 일자리 7000개로 늘린다

2018년까지... 통합센터 설립, 육성기금 200억 조성

전남도가 사회적 기업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체의 근무인원을 4년 내에 7000개로 늘리기로 하고 지원체제 정비에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512개 사회적경제 기업체에서 35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도는 오는 2018년까지 이들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자리를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신설된 일자리정책실에 사회적경제를 전담하는 ‘사회적기업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낙연 도지사의 일자리 창출 공약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조례’를 올 하반기에 제정,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2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 장비 구입, 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거나 신용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기금 조성 전에는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저리 융자자금과 신용보증을 지원하도록 도비 부담으로 신용보증료 일부 지원과 이차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규모나 매출 면에서 영세하고 지역 내 혁신자원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관련 해당 분야 전문가나 종사 경험이 있는 은퇴자 등 200여 명 규모의 인력풀을 구성, 경영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사회적 경제

총조사’를 실시, 현재 지역 내 모든 기업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새로운 영역의 사회적경제 수요 파악과 기업 발굴에 나선다. 이 결과를 토대로 새로 신설되는 통합지원센터를 장구로 ▲200명 규모의 전문인력풀 지원 ▲안정적인 판로 확보 ▲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제공 ▲애로기술 지원 ▲창업보육 아카데미 운영 ▲프로보노를 통한 맞춤형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

주동식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난 심화, 고령화·양극화·다문화가정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 팽창,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전환 필요성 증대 등 세 마리 토끼를 잡는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이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는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美 ‘에볼라 경보’ 최고 단계 격상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이 에볼라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렸다.

6일(현지시간) USA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톰 프리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이 트위터를 통해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이지리아로 번지고 많은 이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에볼라 경보를 최고 단계인 ‘레벨1’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미 보건당국의 이런 조치는 2009년 신종플루 발생 이후 처음이다.

에볼라 확산방지를 위해 이를 일정으로 전세계 보건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긴급회의를 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에볼라 바이러스에 따른 사망자가 932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립국어원 ‘위안부 기림비’ 명칭 변경 권고

‘중군 희생여성 추모비’로

국립국어원이 최근 미국에 7번째로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의 명칭이 사안의 실상을 드러내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외교부에 ‘중군 희생여성 추모비’ 등으로 변경을 권고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국어원에 따르면 ‘기림’이라는 단어가 ‘뛰어난 업적이나 정신, 위대한 인물을 칭찬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는 항의성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 차례 접수됐다.

국어원 관계자는 “‘기림’이라는 표현

은 일본이 자신들의 만행을 합리화하는 용어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게 민원인 측의 주장”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달 외교부에 배경을 설명하고 명칭 변경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본보 6월14일자 ‘명퇴·몰갈이, 시도 인사 태풍 몰아친다’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5·18기념재단은 “안전행정부의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허가(1994.12.22)를 받아 광주시의 산하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1110-증-10719호

Bean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 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매선 30여대)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울베라, 세이지, 에너젯 복합치료
② 여드름 레이저: 스쿠스원, 아야울, 피아미, 프락셀
③ 케모데온 레이저: 켈로맥스, 다이오우드제로
④ 피부 미백: 무데나스원, 엑셀V, 켈로맥스, 루비레이저
⑤ 주름·흉터: 프락셀, 울트라펄스임플로, 프락셀로 인트라세, 프락셀 세나
⑥ 모공: 켈리지, 프락셀5종
⑦ 비만: 내오울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유암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점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부작용: 수술초기 아찔, 빛반점,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40611-증-59153호